

“사랑이면 된다”(Love Is All)

요한복음 John 12:1-8

1.

(감독님 영상 Video Presentation by the Bishop)

많이 놀라셨지요? 연합감리교회의 파송 제도는 가끔 이렇게 목회자와 교인들을 놀라게 만들곤 합니다. 목회자의 이동이 교인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독님과 감리사님 그리고 교회의 목회위원회와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Are you surprised? The appointment system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often makes clergy and lay people surprised like this.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changes of the pastoral leadership are made by the cooperative works of the bishop, the district superintendent and SPRC (the Staff-Parish Relations Committee) rather than the consensus made by a church conference.

감독님과 감리사님은 목회자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기도 중에 목회자의 파송을 결정하십니다. 그렇기에 교인들 편에서 보면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당황스러운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파송제도는 개체 교회가 목회자의 이동 문제를 결정하는 청빙제도와는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교회로서 파송 제도를 존중해 왔습니다.

The bishop and the district superintendent make decisions on appointments with much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pastor and the local church in prayer. As a result, sometimes the appointment can be a big surprise and shock from the perspective of church members. However, the appointment system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as many merits compared to a calling system when it comes to making a pastoral leadership change. Our church is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and we have continually honored this appointment system.

먼저,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에 우리 교회는 매나싸스에 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맥클린 캠퍼스를 물리적으로 확장시킬 수는 없고 교인들은 계속 우리 교회를 찾아 왔기에 대안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때 약 50명의 교우들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장기적으로 헌신하셨고, 약 30명의 교우들께서 단기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부목사님 중 한 분이 캠퍼스 담당 목사님으로 가셨고, 저는 주일 오후에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First, I would like to explain the context to how this pastoral change decision was made. In 2007, our church began a satellite campus in Manassas, VA. We recognized that it was hard to physically expand our McLean campus in order to accommodate the continued growth of our congregation size. We sought an alternative way to resolve this challenge. Through a process of discernment, about 50 church members made a long-term commitment to build a new faith community. Also, about 30 church members made a short-term commitment. One of our associate pastors was sent to be in charge of the campus and I went to preach there on Sunday afternoons.

2010년에 지교회를 센터빌로 옮겼고, 저는 계속하여 주일 오후에 그곳에서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센터빌 캠퍼스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두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우리 교회는 센터빌 캠퍼스를 독립교회로 발전시키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그에 따라 2013년에 윤국진 목사님을 모시고 저는 6년만에 지교회에서의 설교 사역을 마치고 맥클린 캠퍼스 목회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 때 채택한 계획 대로라면 작년 9월에 센터빌 캠퍼스가 독립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In 2010, the satellite campus moved to Centreville, VA and I continued to preach on Sunday afternoons. With that transition, our church began developing a long-term plan to support and grow the Centreville campus. Out of several

options, we decided to help the Centreville campus to become an independent church. Upon deciding this new direction, Rev. Kookjin Yun was appointed to serve the Centreville campus and I stopped preaching there and focused on the ministries of the McLean campus. If we had fulfilled that long-term plan, the Centreville campus should have been independent by September 2015.

안타깝게도 센터빌 캠퍼스는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의 내홍을 겪어야 했습니다. 윤국진 목사님은 당신의 역량을 모두 쏟아 헌신하셨지만 내적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윤목사님은 작년 말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분별하셨고, 당신이 속한 북일리노이 연회 감독님에게 다른 교회로 파송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Unfortunately, the Centreville campus suffered much internal crisis for the last two years. Although Rev. Yun truly devoted himself to serve and resolve the problems with his abilities, the internal crisis and division became worse. As a result, Rev. Yun discerned that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leave. He then asked the bishop of his home conference, the Northern Illinois Annual Conference, to give him a new appointment in that conference.

조영진 감독님과 감리사님 그리고 저와 센터빌 목회위원회는 센터빌 캠퍼스를 담당할 후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맥클린 캠퍼스를 떠나 센터빌 캠퍼스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Bishop Cho, our district superintendent, the Centreville's SPRC and I sought a new candidate to serve the Centreville campus. During this discerning process, after much prayer and consideration, I prayerfully decided to leave the McLean campus and move to the Centreville campus.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름을 진작부터 느껴 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것은 5년 전부터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가겠습니다'라고 순종을 결심한 것은 2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때가 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감리사님께 저를 센터빌로 파송해 주시고 맥클린에 새 목사님을 파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s Bishop Cho mentioned, I felt that this calling became clear to me. I was wondering whether I should go to the Centreville campus. Five years ago, this question came to my mind, and two years ago, I decided to follow this call, should it be God's will. For the last two months, I prayed for this matter and concluded that now is the time to leave. I then asked the bishop and the district superintendent to appoint me to serve the Centreville campus and for a new pastor to be appointed to the McLean campus.

저의 요청을 받아들고 감독님과 감리사님은 놀라고 당황하셨습니다. 감독님은 저에게 더 기도해 보라고, 더 분별해 보라고 거듭 조언하셨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부름을 두고 기도해 왔다는 사실과 제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침내 파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Bishop Cho and the district superintendent were surprised by my request. It was completely unexpected. Bishop Cho advised me to spend more time in prayer and discernment. But Bishop Cho realized that I had prayed about this call for a few years and that I was determined to leave. Then he finally granted my request of new appointment.

2.

저는 목회자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시키는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겨왔습니다. 교회 이전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 한다거나,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 시킵니다. 그런 일로 인해 교회가 받는 상처가 크고 교인들이 받는 아픔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I have always believed that a pastor's unilateral decision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God's will and plan. For instance, a pastor could drive a church relocation project without any consensus of church members. A pastor could decide a big building project based on the pastor's desires, and justify it as God's will. In such cases, we know that churches may suffer badly and church members may seriously feel hurt.

아마도 이번 결정을 두고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면 교회는 뭐냐?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고 믿는 거냐?"

There may be some people who think that my decision may be as such. Someone may want to ask the question, "If a pastor discerns God's will and decides what he/she wants, what could a church do? Do you really believe that only pastors can discern God's will?"

이번 결정은 제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제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를 떠날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는 부목사님들에게 항상 말해 왔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분별했다면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결정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다만, 욕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정직하게 분별하십시오."

This decision was not only made by myself. It was not a one-sided decision. I don't think that I am the only one who discerns God's will. What I believe is that if I honestly ask God's will in prayer, the discernment of God's will shall be not only for me but also for church. Thus, I always say to associate pastors who wonder about whether they should stay or leave the church, "If you honestly discern God's will,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If you discern God's will for you and make a decision, it should also be God's will for the church. But one thing you should keep in your mind is that you should honestly discern it without any personal desires."

이 원칙에 따라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왔습니다. 저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결과, 센터빌로 나가야 한다는 부름에 순종하기로 했고, 이것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믿어서 감독님께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According to what I believe about the discerning process, I have sincerely prayed and honestly discerned God's will. In my prayer, I asked many times to God for what is the best for the sake of God and the church, not for me. After a long discerning process, I obeyed God's call and responded with obedience to go to the Centreville campus. I believe that this decision cannot be made by a committee or a council. Therefore, I directly asked the bishop for a change in appointment.

저의 결정이 상식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결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작에 이 부름을 느꼈지만 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피할 수가 없다 싶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제 머리가 제 마음을 이겼는데, 이제는 제 마음이 제 머리를 이겼습니다. 마음이 가는 길을 머리가 막지 못한 것입니다.

I know that my decision rationally does not make sense and does not have common sense. Anyone can say that this is a foolish decision. That is why I have tried to avoid answering this call. However, I can no longer resist responding to God's call. Until a little while ago I was able to override my heart with my reason. However, now my heart wins. It is just hard to deny where my heart leads.

제가 나가면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센터빌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빌에 나가서 더 큰 교회를 일구려는 욕심은 제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센터빌로 나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바른 공동체를 세워보기 위해서 지치도록 헌신한 교우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마음 뿐입니다. 제게 남겨진 목회 여정이 기껏해야 10 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센터빌 교우들과 함께 벽돌을 쌓아 올리듯 하나씩 쌓아 올려 집을 지어 보려 합니다.

I do not think that I could do a better job in the Centreville campus. I do not have any desires of building a big church at Centreville. The only reason that I am going is to take care of people who have tried to rebuild a healthy congregation even in situations of suffering and pain. I want to be there to comfort and bless them. I may have 10 more years left in my ministry career. During that time, I want to rebuild a faith community with the people of the Centreville campus like building a house one brick at a time.

감독님께서서는 아흔 아홉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저의 결정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천명 교인을 두고 70명 교인에게 가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아는 분이 이 비유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리라는 수가 아니라 그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당해야 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 마리는 편안하게 지내는데 아흔 아홉마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목자는 아흔 아홉마리를 돌보아야 합니다.

Bishop Cho compliments me on my decision and sees it as a heartfelt expression of the shepherd who sought the one lost sheep while leaving behind the ninety-nine sheep. It seems to be an appropriate parable for my situation that I leave about 1000 church members and go for only 70 church members. One of my dear friends pointed to me a core message of this parable: the important point is not about the number of the lost sheep but the feeling of loneliness and fear of being lost that the lost one has. Thus, if one sheep is doing well and ninety-nine sheep are having troubles, the shepherd has to take care of the ninety-nine sheep.

제가 센터빌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바른 교회를 세워 보기 위해 헌신하면서 상처받고 지친 교우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저를 결박하여 놓아주지 않습니다.

This is the reason that I could not turn my heart away from the Centreville campus. I am bound by a compassionate heart that is toward the exhausted people who have been in a hurtful situation like being in a wilderness while dedicating themselves to rebuild a healthy church.

아흔 아홉마리의 양의 비유에 대해 “한 마리를 살리자고 아흔 아홉마리를 광야에 버려 둔다면 그 목자를 칭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유 해석의 대가인 요아킴 예레미아스(Joachim Jeremias)는, 목자가 아흔 아홉마리의 양을 안전한 동굴 안에 피신시켰거나 다른 목자에게 맡겨 두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may have a question about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saying “How could we praise the shepherd who leave the ninety-nine sheep in the wilderness in order to save one lost sheep?” Joachim Jeremias, a distinctive scholar of Jesus’ parables, says that we have to think that the shepherd already took the ninety-nine sheep in a safe place or the shepherd asked another shepherd to look after them.

사실, 센터빌로의 부름을 진작에 느꼈지만 실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맥클린 캠퍼스가 든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떠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제가 섬겨 온 11년 중에 가장 평안하고 든든하고 부흥하는 시기입니다. 세대 교체된 임원들은 든든히 자리를 잡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훌륭한 부목사님들이 각자 맡은 사역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로서 저는 지금 태평성대를 누릴 즈음에 있습니다.

Frankly speaking, although I had already felt this call, I could not answer it because the McLean campus was not stable. It would have been irresponsible of me to leave the McLean campus previously, but now we have come to a secure time of revival. The lay leadership has become stable and strong and faithfully serving the different ministries of our church. Our excellent associate pastors are serving well in their ministries. As the senior pastor, I am about to enter into the time of peace in the ministry.

인간적으로 제가 떠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님들을 떠난다는 생각에 저와 제 아내는 지난 세 주간 동안 속쓰린 아픔을 견뎌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떠나야 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비유하자면, 아흔아홉마리의 양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든든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한 마리 양을 향해 나가도 될 때입니다.

There is no human reason that I have to leave this wonderful church. Please, do not misunderstand me or get me wrong. It is painfully hard for my wife and I to think of leaving our loving and respectful church members. It has been a really difficult last three weeks. However, it is now the time for me to leave. Using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we have already secured the ninety-nine sheep. Therefore, it is a time for me to leave in order to take care of the one lost sheep that is weeping in the wilderness.

3.

오늘 저는 '전교인성경일독'의 진도에 따라 요한복음 12 장에 나오는 향유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전교인성경일독'은 중단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떠나도 올해에 예정된 목회 계획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전교인성경일독'은 제가 맥클린에서의 목회 여정을 마치면서 교우 여러분께 남길 가장 큰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The One Year Bible Reading Chart", it is the story of Jesus being anointed in Bethany (John 12). You might worry that "One Year Bible Reading" campaign might be discontinued after my departure. However, this year's ministry plan will continue to carry out even after I leave. I hope that 'The One Year Bible Reading' will be the greatest legacy I leave with you.

막상 센터빌로 떠나기로 결정한 후에 저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센터빌로 나가서 고생할 것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 염려와 두려움은 혹시나 이 결정이 맥클린 캠퍼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After I made the decision to leave, I did have fear and worries. I am ready to struggle in Centreville. There is no fear about that. However, my worry and fear comes from whether my decision to leave would cause McLean campus to go through hardships.

우리 교회는 지난 35 년 동안 한 번도 분열이나 갈등 없이 바른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소수 민족 교회이지만 버지니아 연회 내의 천 이백 교회 중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또한 미주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들을 섬겨 왔습니다. 혹시나 저의 이 결정이 이 역사의 흐름에 잠시라도 혼란을 주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Our church has been faithful to its calling and never gone through divisions or conflicts in the past 35 years. As a result, we, as a minority congregation, have been the leading church among 1,200 United Methodist Churches in Virginia Conference. We also have been serving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Yet, I was worried that my decision would for even a moment cause chaos or shake up the strong history of our congregation.

그럴 때마다 제가 읽는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임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염려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말씀에 대한 저의 묵상을 나누려 합니다.

Whenever I struggled, God's Word brought comfort and hope. Out of all the readings, today's reading brought incredible comfort and strength. I would like to reflect on today's Scripture for those who are shocked and worried upon hearing the news.

유월절을 한 주일 앞 둔 어느 날, 예수께서 친구 나사로의 집에 다시 들르십니다. 마르다는 기뻐서 음식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드십니다. 그 때 마리아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습니다.

Jesus visits his friend Lazarus' home a week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Martha prepares food with joy, Jesus is reclining at the table and eating the meal with Lazarus. Then Mary brings a perfume and pours it on Jesus' feet and wipes his feet with her hair.

5 절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에 따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낸 향유는 당시 돈으로 삼백 데나리온 즉 성인 남성이 한 해 동안 번 돈을 모두 저축해야만 살 수 있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최소한 5 만 달러 정도는 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Based on the sayings of Judas in verse five, the perfume Mary poured on Jesus was worth a year's wages-three hundred denarii-a very expensive one. It would be worth \$50,000 in today's value. Mary poured such expensive perfume freely on Jesus' feet.

가롯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화를 냅니다. 그의 냉철한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6 절에서, 가롯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들어올 5 만 달러가 허비되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Judas got upset by Mary's act. In his analytical mind, he could not understand it. He said how many people could be helped if the money were to be given to poor. The apostle John, the author of the gospel of John describes in verse six that Judas did not say that because he cared about the poor, but because he saw it as losing the money that could have been used for himself.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유다의 말에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둔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Everyone who were watching must have agreed with what Judas has said. However, Jesus surprisingly defends Mary by saying: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7-8 절)
"Leave her alone," Jesus replied. "It was intended that she should save this perfume for the day of my burial. ⁸You will always have the poor among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vs 7-8)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돈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책망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너그러우신 것입니까?
Jesus always paid great attention to the poor. He criticized and rebuked about wasting money. But why was he so gracious to Mary?

마리아의 행동에 숨겨진 의미를 그분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두둔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항상 해야 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있다는 뜻입니다.
He saw the hidden meaning behind Mary's action. Mary was just following what her heart led her to do. Unbeknownst to her, Mary was preparing Jesus for His burial. Her love for Jesus led her to this action without realizing its meaning herself. Jesus defends her action for He knows the truth. There will always be opportunities to help the poor and at this time preparing for Jesus' burial was more significant.

사랑은 자주 눈을 멀게 만듭니다. 사랑은 때로 이성을 마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다.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의 방향인데, 그 사랑의 방향을 무턱대고 따라가면 머리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Love often makes you blind. Love sometimes makes you do unreasonable things. But that love also creates miracles. Our logic can never understand where love takes us, and if we just follow where it takes us, we experience things that cannot be predicted with logic.

마리아도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 향유는 시집가기 위해서 마련한 결혼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었습니다. 향유를 조금만 찍어 발라 드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그것을 다 쏟아 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Mary must have known the value of the perfume. It probably was the money she saved for her future marriage. She did not have to spend it to reveal her love for Jesus. She could have just used a little bit of oil to wipe his feet. But her heart did not allow that. Her love for Jesus caused her to pour it all and that act became the preparation for Jesus' burial.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설교 중에 “사랑하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Love and Do What You Will)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이끄는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낭비로 보였으나,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One of the most famous sermons of Saint Augustine is "Love and Do What You Will". If you do it in the name of love, it will bear good fruit. Love was her motivation to act as such. She followed her heart that was full of love for Jesus. Other people could not see this love and assumed her action was a complete waste of money. Because of her love, Mary was given the privilege of preparing Jesus for His burial.

사랑은 낭비가 아니고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구에게든 사랑을 느껴 본 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낭비했거나 돈을 낭비했거나 눈물을 낭비했을 때였습니다. 마음으로 사는 어머니들은 낭비하는 일에 절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면, 머리로 사는 아버지들은 절대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믿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Love cannot be conveyed without lavishing labor of love. If you have experienced love, think about how it was experienced. You experience it when someone lavishes time, money or tears on you. Mothers who live by heart lack self-control in lavishing a labor of love. Therefore, children do not doubt about maternal love. On the other hand, fathers who live by logic never lavish as such. They only give the necessary amount. Therefore, children do not have confidence in paternal love. The reason that the cross is such an incredible power to those who believe is because it is the proof that God's love has been lavished on us.

그렇게 사랑이 낭비되는 곳에는 향기가 번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 때 일어난 변화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Where love is lavished as such, the fragrance of love spreads out. The apostle John describes Mary's act of lavishing love on Jesus' feet as such: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3 절)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vs 3)

4.

이 말씀을 묵상 하면서 저는 마음에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결정을 하게 만든 유일한 요인은 오직 센터빌 캠퍼스 교인들을 향한 공호와 사랑뿐입니다. 물론 맥클린 캠퍼스에 나오시는 교우들께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As I was meditating on this story, I received comfort and confidence. My love and devotion for the congregation in Centreville campus was the only reason for making such a decision. Of course, I have the same love for everyone in McLean campus. However, isn't it natural to be more drawn to a child who is ill?

저 자신도 이성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그것이 오직 사랑으로만 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센터빌로 나가는 것이 저의 은사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낭비를 통해 사랑이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향기가 번져 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The decision does not seem to be made on rational or common sense. However if it is made based on love, God will accomplish great things beyond expectations. Bishop Cho worried that going to Centreville might be wasting my talents and gifts. If it is so, the love will be delivered through a lavished act. And the fragrance will be spread through such an act.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저의 결정이 여러분께 큰 충격이요 혼란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럴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들께 죄송한 마음이 큼니다. 혼란스럽고 허탈하고 낙심될지 모르지만, 며칠 동안만 이 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위로해 주실 것이며, 염려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축복해야 할 일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Dear beloved congregation members, I know the news is shocking and confusing. I apologize once again that it had to come down to this. I apologize, especially to the members who joined the church recently. It must be confusing and discouraging, however I ask you to spend a few days praying about this matter. God who comforted me will comfort you, also will help you to realize that we are not to be worried and discouraged, but to be thankful and to bless.

아울러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한 분도 흔들리지 마시고 맥클린 캠퍼스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 맥클린 캠퍼스가 더 은혜롭고 왕성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하는 길은 이곳에 남아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를 센터빌로 부르신 주님께서 훌륭한 목사님을 후임으로 보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I also plead with you. Please, I hope that none of you will stumble, but will remain in McLean campus. Through your devotion, let this church continue to grow as an effective and thriving ministry. It is for me that you remain in this campus and open a new chapter with the new pastor. I have no doubt that the Lord who is calling me to Centreville will send you a wonderful servant.

이런 때는 오직 사랑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이면 다 됩니다. 각자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더 사랑할 것인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이번에 일어난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두고 두고 감사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In times like this, we only need to think about Love. Love makes all things happen. Love is all we need. If we are able to lay down all of self centered greed, continue to ponder on how we can further love God and the church, and strive to obey God's will, then this change will become the source of thanksgiving.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s love. I believe in the love that is in me and you. Amen.

사랑의 주님

사랑을 주소서.

오직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사랑이 이루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아멘.

God of love

Equip me with your love

Let me live according to your love

And let me see the miraculous fruits of your love

Amen.